

2026년 사이타마 교구 새해 인사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교황 레오 14세)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 2026년이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지낸 후,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극동에 있는 일본은, 다른 모든 나라, 대륙, 섬들보다 빨리 신년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2026년의 새로운 태양을 향해, 83억 명의 큰 인류 가족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인 예수님과 한마음으로, 레오 14세 교황님의 신년 메시지를 환영하고자 합니다.

한 해의 시작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 선교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비무장과 군축의 평화를 향해.」

교황에 취임하신 첫 순간, 5월 8일 오후, 성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 발코니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부터, 오늘 8월 26일, 종합적 인간 개발청에 의해, 발표된 2026년 세계 평화의 날의 테마에 이르기까지, 「평화」는 교황 레오 14세의 말과 행동의 공통 테마가 되어 왔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받아들이기」

이 주제에 관한 메시지에서, 교황님께서는 「인류가 폭력과 전쟁의 논리를 거부하고, 사랑과 정의에 근거한 진정한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군축이라는 선택이며, 「즉 두려움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가 침묵할 때 「군축」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는 「분쟁을 해소하고, 마음을 열어, 신뢰, 공감, 희망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도 구조적인 것도,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절하는 삶의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사에서부터 베드로의 후계자에 이르기까지, 이 초대는 「신자, 비신자, 정치 지도자, 시민」을 향한 보편적인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고, 인간다운,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건설한다」는 열렬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말씀에 따르면, 평화라는 주제는, 그 흉터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세계는, 분쟁, 불평등, 환경 파괴, 나아가 늘어나는 정신적 고립감이라는 깊은 흉터를 짊어지고 있습니다」라고, 1925년 열린 '에큐메니컬 집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스톡홀름의 '에큐메니컬 주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로나의 「평화의 광장」을 낳은 운동체와 모든 단체를 향한 연설에서 말했듯이, 화해는

「현실」, 즉 지역이나 공동체로부터 태어나, 현지의 여러 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름」이나 「대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 수용해,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여러 기관을 정돈하라」

그러나, 통증이 우세하게 보이는 곳에서는, 더 큰 책임, 즉 화해의 내일을 쌓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유지의 관성을 깨는 충격을 요하는,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역설입니다. 「라틴인들이」 Si vis pacem, para bellum(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한 반면, 레오 14 세께서는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여러 기관을 정돈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위로 부터 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모든 이들과 대화 하며」 해야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보편적인 조건은, 단지 하나입니다. 「용서 없이는, 결코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지난 8 월 20 일의 일반알현에서, 포르투갈에 오래된 뿌리를 가진 신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자세를 가지고, 평화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구하지만, 특히, 미래를 살 젊은이들은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토르 베르가타에서 개최된 젊은이들의 축제(희년, 주빌리)의 전야제에서, 교황님께서는 「정의와 평화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선교자를, 세계는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잊혀지기 쉬운, 단순한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정은,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정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년행사의 미사를 위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하늘을 관통하고, 기억에 새겨질 외침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이 새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보다 형제애로 가득한 사회의 건설자가 되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